

## 작은 동화의 나라

# 딜리델리



정겨운 사람들과 마주할 때 한 조각의 케이크와 따뜻한 차잔을 앞에 놓고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행복, 그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맞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둔촌동에 자리한 딜리·델리 베이커리는 바로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동화의 나라와 같은 곳이다.

특독한 이 집의 이름을 먼저 해석해 보면, 딜리셔스와 델리카티슨(Delicious & Delicatessen)의 앞 알파벳을 따와 만든 '참맛 베이커리'라는 뜻으로 이 업소 대표인 최삼림씨 따님들의 작품이라 한다.

한 집 걸러 제과점과 커피점이 문을 열고 모두들 현대적이고 고급스런 치장으로 손님을 끌고 있을 때, 딜리·델리의 고정관념을 깬 파격적인 인테리어는 남다른 매력을 주고 있다.

예쁜 간판과 이국적인 가로등, 벽에 그려진 뽕모자를 쓴 빵집 아저씨가 천막을 올리고 있는 모습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동화의 나라로 발길을 옮긴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내부장식은 회백색의 벽에 백송나무의 원목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특히 백송나무에 홈을 파고 인디언 이미지의 그림을 그린 조그만 테이블은 누구라도 앉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공간.

원래 높은 천정을 2중천정으로 하여 밀집으로 장식하고 그 가운데 큰 바구니를 매달아 어디 신비의 숲속으로 피크닉을 나온 기분이 들게 한다.

오렌지색 에이프런에 모자를 쓴 어여쁜 소녀들이 반겨주는 곳. 그림 속 동화의 나라가 아닌 살아있는 동화의 나라에 다녀온 이의 마음은 행복하기만 하다.



백송나무에 인디언 이미지로 처리한 안내표지판.

예쁜 간판과 이국적인 가로등. 장난스런 타일색은 지나는 이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중 천정에 밀짚으로 장식, 큰 바구니를 매달아 피크닉 나온 기분을 좋게 한다.